# 인도 나란다 불교대학 유지

## - 12세기 폐허화 이후 인도 불교 쇠락 -

파트나동남방90km 지점에는2세기부터 12세기까지 1천년 동안 불교 사상연구원으로큰번영을구가했던나란다불교대학 유적이 남아 있다. 이 불교대학의 부지는 가로 11km, 세로 5km로 광활하며 현재는 그 유지 일부만 발굴된 상태인데도 선원, 강당, 도서관, 노천극장, 교실, 공동식당, 운동장, 음식창고터등이넓게펼쳐져있어당시의컸던학교규모를짐작할수있게했다.

한창 번창했던 7세기경에는 이 학교에 1만여 명의 학생과 2천여 명의 교수가 있었고하르샤바르나다왕은거대한청동불과청동으로건축한선원을왕실재정에서 출연 건립해 기증했으며, 인근 백여 마을의 세금을 모두 이 대학에 납부하도록 해 명실상부한 국립 불교대학으로 육성시켰다. 당시로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큰 종교 요람으로 인도국뿐만 아니라인근여러나라의고승들까지모여들어연학수련함으로써구도의혼불이거세게타올랐던곳이라한다.

이 학교는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왕이 이곳에 나란다 사원을 건립한 것이 효시였다 하며 이후 큰 요람으로 발전했는데 중국의현장은서기 637년에이곳으로찾아와이대학에입학한뒤 10년동안유학하고귀국했으며서기 673년에중국의의정도 이곳을 찾았는데 8개의 승원과 5개의 사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신라국 승려들도 여러 명이 수학했다하는데그중에아리야발마와혜업법사는 잘 알려진 인물로 그들의 유학 사실이 기록으로도 남아 있다고 한다. 일찍이 불타도 임종 준비차 쿠시나가라로 가던 도중 이곳에서 3개월 간 안거한 일이 있었다한다.

이 학교는 서기 1199년 무슬림의 침공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건물, 집기와 서책이얼마나 많았던지3개월동안계속 불탔다고 하며 그때 재학 중이던 학생과 교수도대부분무참히살해된것으로전해오고있다.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인도국 불교가 사양길로 접어들었으며 이후 8백년 동안극도의쇠미가계속되었는데자기이후 1500년 후부터 불교가 시들어질 것을 염려한불타의예언이적중된셈이다.

필자가이번에인도국불타관련성지들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점 가운데중요한하나는불교시원지인인도국은 불교가 쇠미해진 반면 범 아시아권 여러 나라인 네팔, 티벳, 스리랑카, 태국, 중국, 우리나라와일본등은불타의가르침이예와 다름없이 현란한 꽃을 피우고 있고 위 인도 불교 성지들에 이들 나라들의 불교 사원들이속속들어서고있어인도에불교가역수입되고있다는감회를갖게했다.

위와 같이 인도 불교의 쇠미 현상을 가져오게한것은불교말살정책을편이슬람교도들의침공이가장큰요인이되었겠으나 불타 재세시에 큰 명당들을 잘 찾아 활용함으로써융성했던운세가명당 기운이소진될시기가되었음에도그이후에는 이렇다할큰명당들을찾아쓰지못한때문이아니었나하는추리도해보았다.

필자의 견해로 우리나라의 경우 불교 전래 이후 큰 명당들을 찾아 불사리를 안치하거나 좋은 터에 절들을 계속 지어 왔기 때문에 그 번창한 운세가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발굴된나란다불교대학유지는네곳으로 집약되는데 각종 전탑 등 많은 유적이 발굴된 남쪽 유지에는 큰 명당이 없고두번째유지인불상안치처에준특대화기명당이 맺어져 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유지에도 좋은 양기명당 자리가 있어 나란다불교대학이오랫동안큰학숙으로 발전할수있었다는생각을굳히게했다.

최근 탐문한 바에 따르면 이 나란다대학이 재건되어 2009년부터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그 경위는 싱 총리가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제안해각국정상들의 동의를 얻었고 이미 이 학교 설립을 위한 고문회의가 구성되었으며, 1억 5,000만달러의예산도확보해놓은상태로 불교, 철학, 역사, 언어, 경영학 등의 석·박사과정을두는것으로결정되었다고하니축하할만한일이다.

**서광석**
건설원가협회회장